

中國 朝鮮族의 現況과 展望

- 1990年代 以後를 中心으로 -

張世胤 高句麗研究財團 研究委員

1. 머리말

日本帝國主義 強占期에 中國 東北지역에 이주하여 치열하게 反帝 · 反封建鬪爭을 전개했던 한국인(조선인)들의 상당수는 日帝의 패망 이후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조선)에 돌아가지 못하고 中國東北(滿洲) 현지에 정착한 한국인들이 더 많았다. 이들 韓人 同胞과 그 후예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특유의 정치·법률적 개념으로 정착한 ‘조선족’이란 용어로 불린다. 때문에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 — 조선족 — 의 현황을 간단히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92년 韓 · 中 修交 이후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었다. 또 2002년 2월부터 중국 당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면서 ‘조선족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구체화한 ‘東北振興戰略(計劃)’ 역시 조선족 문제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 때문에 이들 프로젝트의 내용과 향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中國과 韓國의 交流가 加速化하고 조선족의 국내외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조선족 문제 연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다.²⁾ 또 조선족에 관한 일부 개설서가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³⁾

이에 본 小論을 통해 중국의 소수민족 및 조선족 정책, 그에 대한 인식을 概觀하고 중국측 연구동향을 간단히 검토한 뒤, 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된 조선족 사회의 개략적 현황과 전

논문접수일 : 2006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 2006년 4월 15일

1) ‘동북진흥전략’은 중국 동북지역 거주민의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그들의 지역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조선족 등 일부 ‘동북변강’ 민족의 한반도 傾斜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과 국방을 확보하며, 동북아 주변국과의 지역적 협력을 통해 동북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안정을 확실히 하려는 중국의 동북변강정책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스트럭처(Infra Structure)의 구축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대규모 중화학공업과 기간산업의 혁신 등 물질적 토대의 구축을 통한 동북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개방노선, 한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제발전 전략인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尹輝鐸, 『現代中國의 東北邊疆政策 - 東北振興戰略을 중심으로』, 『중국의 민족·변강문제 연구동향』, 高句麗研究財團, 2005, 206-258쪽 및 寧一冬寧, 『東北昨整 - 東北問題報告』, 北京 : 當代世界出版社, 2005 참조.

2) 李振翎, 『韓-中 外交關係와 在中同胞 - 在外同胞法 憲法 不一致 決定을 中心으로』, 『國家戰略』 8권 4호, 城南: 世宗研究所, 2002 및 『朝鮮人에서 朝鮮族으로: 中國共產黨의 延邊地域 掌握과 正體性 변화(1945~49)』, 『中蘇研究』 26권 3호, 漢陽大 亞太地域研究센터, 2002 ; 서울大 社會發展研究所,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 -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2002(在外同胞財團 支援 研究課題) 등 참조.

3) 鶴嶋雪嶺, 『中國朝鮮族의 研究』, 大阪: 關西大學出版部, 1997; 任桂淳,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2004.

망, 발전전략, 한국과의 관계 등을 간단히 검토코자 한다.

2. 중국의 少數民族 및 朝鮮族 認識과 政策

중국은 漢族과 55개 '少數民族'이 함께 모여사는 多民族國家이다. 현재 중국은 인구의 약 91.6%를 차지하는 漢族을 '多數民族'이라고 칭하고, 그 외의 55개 민족을 漢族에 비해 인구가 적다는 의미에서 '少數民族'으로 부르고 있다.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선족'이란 호칭은 국적과 민족출신을 동시에 표현하는 정치·법률적 용어로 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이란 中國國籍을 취득한 조선(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중국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선민족 출신자를 가리킨다.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는 '조선(한국) 교민'으로 분류되고, 移民者의 후손이 다른 민족 집단에 同化되면 조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⁵⁾

1995년의 경우 중국의 총인구는 약 12억 3천 7백만명인데, 漢族은 11억 2,546만 명이었다. 이는 총인구의 91.01%를 차지한다. 55개 소수민족의 총인구는 1억 1,123만 8,100명으로 중국인구의 8.99%이다. 한편 조선족 인구는 192만 3,400명으로 0.17%를 차지하고 있다.⁶⁾

전통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족자결 방침이었다. 물론 이 원칙은 마르크스주의와 코민테른, 소련(스탈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마르크스주의의 민족문제 처리의 기본원칙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의 견지였던 것이다.⁸⁾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 및 조선족정책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민족단결을 해칠 수 있는 분열조짐에 대해서는 '反分裂鬭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⁹⁾

民族區域自治 制度는 中國 政府가 民族政策의 原則으로 삼고 있는 主要方針이다. 그러나 민족구역 자치는 '중화민족주의(혹은 중화국가주의)'에 근거하는 세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국가통일의 원칙, 민족단결의 원칙, 그리고 사회주의 민족관계와 사회주의 民族法制 建設의 원칙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特定地域의 分離獨立이나 割讓 등과 같은 형태의 소수민족 自決權 否定, 中華民族에서의 離脫禁止, 프롤레타리아 독재형식, 즉 中國共產黨이란 唯一黨의 單獨執權 認定 등의 특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¹⁰⁾

중국이 소위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분리독립주의자 2명을 사형시키고 16명에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實刑을 宣告한 사실이 밝혀졌다.¹¹⁾ 또 중국 당국이 2004년 西北部의 新疆 위구르自治區 獨立運動과 관련하여 체포한 위구르족 分離主義者 50명 이상에게 死刑을 宣告했다는 최근의 보도도 있었다.¹²⁾ 중국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에 얼마나 예민하고

4) 黃有福, 「중국 조선족 현황과 정책과제」, 『중국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재조명』,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2, 198쪽.

5) 黃有福, 위의 논문, 198-199쪽.

6) 黃有福, 「중국의 민족정책과 조선족」, 『중국조선족 사회와 문화의 재조명』, 217쪽.

7) 金英萬·戴維翰·金鍾國, 「중국의 특색을 띠고 있는 민족리론과 민족정책」, 『연변 사회주의 민족관계의 형성과 발전』, 北京: 民族出版社, 1987, 63-64쪽.

8) 朱在憲·尹鴻鵬 主編, 『吉林省 民族工作手冊』,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93, 350쪽.

9) 위의 책, 352-353쪽.

10) 李振錫,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民族研究』 9, 韓國民族研究院, 2002, 17쪽 및 『中國民族工作五十年』, 6-7쪽.

11) 『東亞日報』, 2004년 8월 14일자 A10쪽.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티벳·위구르·몽골 연변 조선족 문제가 飛火할 것을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중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다수가 그 지역의 분리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¹³⁾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정부는 漢族 集居지역과 소수민족 집거지와와의 발전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소수민족 자치구역 정부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는 등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변경지대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¹⁴⁾ 이러한 배경에서 소위 ‘서부대개발’과 ‘東北振興戰略’, ‘東北工程’ 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동북공정’은 周知하듯이 현대중국의 歷史觀 · 民族觀 · 國家觀 · 領土觀 등이 집약되어 표출된 역사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滿洲戰略’이자 東北亞 戰略으로 평가된다.¹⁵⁾

1990년에 시행된 제4차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인구는 9,120만 여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 중국인구의 8.04%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소수민족 자치지방의 국토면적은 전중국의 약 64%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었다.¹⁶⁾ 특히 이들 소수민족 거주지는 주로 邊方의 國境地帶에 集中되어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들 少數民族 居住地域의 動向에 銳敏하게 觸覺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일부 소수민족은 기회를 활용하여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오히려 대다수 소수민족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산방식과 여건, 환경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상태의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개방된 東南沿海 지구에 비해 소수민족 지역은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교육수준이 낮고 빈곤인구가 집중되어 있다.¹⁷⁾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같은 소수민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각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中國少數民族現狀與發展調查’ 사업이 태동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족에 대한 연구사업의 결과가 ‘中國少數民族現狀與發展調查研究叢書’의 하나로 발간되었다.¹⁸⁾ 조선족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龍井市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내 소수민족중 인구순위는 13위이지만,¹⁹⁾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차 사업대상 민족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족의 조사연구에서는 일반 현황 외에 용정시 사회경제 발전에서의 몇가지 문제, 용정시 공산품 시장경쟁력의 不振 문제, 농민의 種糧 積極성 결핍문제, 농촌 젊은 여성의 流失문제, 跨國(越境) 인구유동 문제, 조선족의 민족교육과 민족문화 등이 전문연구 과제

12) 『世界日報』 2004년 9월 15일자 보도(우루무치에서 로이터 연합뉴스의 보도에 근거). 그러나 사형이 집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3) 田曉明, 「如何對應朝鮮半島變化」, 『深圳熱線』, 2005; 尹輝鐸, 『新中華主義』, 首爾: 푸른역사, 2006, 348~351쪽에서 재인용.

14) 李振龍,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34쪽.

15) 尹輝鐸, 「현대 중국의 고구려·발해 인식과 한계」, 『한국근대사와 고구려·발해 인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27쪽. 동북공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李珩義, 「現代中國 歷史學研究的 推移와 東北工程의 歷史學」, 『中國의 東北工程和 中華主義』, 고구려연구재단, 2005참조.

16) 盧勳, 「《中國少數民族現狀與發展調查研究叢書》出版綜述」, 『民族研究』, 1999년 6기, 95쪽.

17) 「總序」, 『龍井市-朝鮮族卷』, 中國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 編, 民族出版社, 1999, 2쪽.

18) 中國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 編, 『龍井市-朝鮮族卷』, 民族出版社, 1999.

19) 1995년 경 조선족은 인구 192만 4천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200만 내지 21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中國民族年鑑》 編輯部 編, 「中國少數民族概況」, 『中國民族年鑑(2003)』, 北京: 新華書店, 2003, 33~35쪽.

로 다루어졌다.²⁰⁾ 이 문제가 그만큼 용정 등 연변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新疆·西藏·廣西·寧夏·黑龍江·吉林·遼寧·甘肅·青海·四川·雲南·貴州·廣東·湖南·河北·福建省 등에 분포하고 있다.²¹⁾ 이 가운데 중국 영토 밖에 모국이 있는 민족은 몽골족(몽골), 조선족(한국과 북한), 하사크족(카자흐스탄) 등 3개 민족 밖에 없다. 인구 백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은 조선족을 포함하여 18개 민족이다.²²⁾

중국의 소수민족 인구비율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3년의 경우 소수민족 인구비율은 5.89%였으나, 1964년에는 5.7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82년에는 6.62%, 1990년에는 8.01%, 2000년에는 8.4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²³⁾ 2000년 현재 한족의 인구는 11억 5,940만여 명, 55개 소수민족의 총인구는 1억 64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⁴⁾ 이러한 추세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학계는 기본적으로 ‘朝鮮族’은 夫餘나 高句麗 渤海 등의 古代國家 및 그 主體民族과 無關한 것으로 본다.²⁵⁾ 특히 조선족은 중국의 ‘統一的 多民族國家’를 구성하는 ‘東北民族’의 一員으로 把握되고 있다.²⁶⁾ 최근 ‘東北工程’ 추진 結果物들이 대거 출판되면서 이같은 論理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한국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동북공정’의 연구 結果物을 편집하여 간행하는 ‘東北邊疆研究叢書’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李德山 樊凡 共著의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北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2003)는 한국인들이 한국사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古朝鮮 夫餘 高句麗 沃沮 등의 여러 국가와 민족을 ‘중국동북의 濊貊系 古民族’으로 서술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중국 학자들은 조선족이 중국근현대 시기에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선족은 1860년대 말과 1880년대는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190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따른 정치적 동기에서의 이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⁷⁾

중국공산당은 1928년 7월 개최한 제6회 전국대표대회에서 최초로 ‘滿洲의 高麗人’을 중국의 소수민족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미 1936년 초 ‘間島(延邊)에 朝鮮民族自治區를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²⁸⁾ 따라서 중국동북 韓人들의 抗日戰爭 과정에서 民族自治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은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이며, ‘조선족’이란 호칭 역시 1950년대 초 ‘延邊朝鮮民族自治區’가 성립되는 시기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⁹⁾

20) 中國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 編, 『龍井市-朝鮮族卷』, 民族出版社, 1999, 239~299쪽.

21) 黃有福, 『中國의 民族政策과 朝鮮族』, 217~218쪽.

22) 《中國民族年鑑》編輯部 編, 『中國少數民族概況』, 『中國民族年鑑(2003)』, 北京: 新華書店, 2003, 33~35쪽 참조.

23) 『全國少數民族 人口』, 『中國民族工作五十年』, 725쪽 및 『5次全國人口普查 基本情況』, 『中國民族年鑑(2003)』, 538쪽.

24) 위의 『5次全國人口普查 基本情況』, 『中國民族年鑑(2003)』, 538쪽.

25)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편집위원회 편, 『개척』, 북경: 민족출판사, 1999, 1쪽. 그러나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보면 이와 다른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高英一, 『中國朝鮮民族史研究』, 首爾: 學研文化社, 1999, 262쪽).

26) 陳連開 主編, 『中國民族史綱要』,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99, 157~159쪽.

27) 위의 책, 231~234쪽.

28)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部會 編, 『中國共產黨史 資料集』 8, 東京: 勁草書房, 1974, 115~116쪽.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립되고 1955년 12월에 ‘延邊朝鮮族自治州’로 개칭되었으며, 1958년 9월 길림성 ‘長白朝鮮族自治縣’이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흑룡강 · 길림 · 요녕성과 內몽골自治區에 42개 조선족 自治鄉이 설립되었다. 1990년의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은 192만 597명에 달했다.³⁰⁾

일반적으로 중국인(漢族) 연구자들은 延邊朝鮮族自治州나 長白朝鮮族自治縣 등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 자치지방이 민족간에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한 원인을 분석한 중국인 연구자 劉智文은 대체로 여섯가지 원인과 배경을 들고 있다.³¹⁾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 연구자 朴今海에 의해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특히 조선족정책이 기본적으로 민족자치를 허용하는 등 민주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조선족이 중국공산당 정권의 수립 이후 중국사회에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순조롭게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³²⁾ 대체로 이러한 논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공산당 소수민족정책의 實相과 裏面을 비판적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在中 조선족의 국적문제를 놓고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조선족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6개 ‘민족대가족’의 일원이라며 이중국적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국 ‘재외동포법’의 혜택에 조선족이 포함되면 조선족 사회가 사실상 붕괴될 것이고, 조선족의 공무담임권과 재산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민족주의가 고양됨으로써 領土問題 등 여러가지 정치·사회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³³⁾ 이러한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조선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중국의 ‘개혁개방’과 조선족사회의 변화

1978년 말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全員委員會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가능케 한 새로운 역사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³⁴⁾ 이에 따라 중국 조선족사회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에 부응하여 엄청난 변화를 보이게

29) 黃有福, 「中國朝鮮族 現況과 政策課題」, 200~201쪽.

30) 위의 논문, 201~202쪽.

31) ①近代 東北邊疆 開發史는 실제로 滿州族과 關內에서 大舉移住한 漢族, 中國境內에 몰래 들어온 朝鮮族 農民이 共同開發한 歷史이다. ②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운명은 이 민족으로 하여금 화평, 안정된 환경과 생활을 각별히 귀중히 여기게 하였다. ③중국공산당과 신중국의 정확한 민족정책은 중국조선족 100여년의 근본문제(법률지위와 토지권)를 해결하였는데, 이는 舊中國 및 외세 통치자의 민족정책과 선명한 대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족 인민은 진심으로 중국공산당과 신중국의 민족정책을 愛戴하고 옹호하게 되었다. ④중국조선족은 하나의 외래민족에서 중국의 연륜많은 한 소수민족으로 漸變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조선민족과 중화민족이 서로 인정하는 과정이다. ⑤중국적 특색이 있는 조선족문화와 문화소질이 비교적 높은 조선민족은 민족화목의 문화기초이다. ⑥개혁개방 후 국외에서의 중국조선족의 운명과 국의 일부 조선족 간 사회지위의 큰 편차는 오히려 조선족에게 정확한 조국관을 확실히 하고, 그들의 애국주의 정서를 강화하였다(劉智文, 「中國東北朝鮮族自治地方民族和睦的成因初探」, 『民族政策研究文叢』 2, 民族出版社, 2002, 165~176쪽).

32) 그는 중국공산당이 조선족 地區에서 전개한 공작의 방침과 원칙으로 ①조선인민의 평등권리 보장, ②조선족 자치권의 승인과 민족구역 자치의 실행, ③조선족의 토지문제 해결, ④조선족을 적극 생취하여 공동으로 抗口救亡運動을 전개, ⑤조선족 간부의 大舉培養, ⑥조선족 문화·교육과 언어·문자를 발전시킨 점 등을 들었다(朴今海, 「論新民主主義革命時期中國共產黨的民族政策在東北朝鮮族地區的實踐」, 『民族研究』 2001년 6기, 20~28쪽).

33) 李振錫, 「한-중 외교관계와 재중동포 — 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國家戰略』 8권 4호, 城南: 世宗研究所, 2002, 83쪽.

되었다.

특히 文化大革命 기간에 탄압받았던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982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민족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1984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을 채택하였다. 1958년 人民公社化 시기에 철폐되었거나 有形無實이 되었던 ‘民族鄉’도 1983년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회복하거나 새로 건립되었다. 그 결과 1987년까지 중국 24개 省·市와 自治區의 소수민족 集居區에서 모두 2,900여 개의 소수민족 鄉이 세워졌다.³⁵⁾ 연변조선족자치주 自治條例는 1984년 중국에서 맨 먼저 제정되어 다른 자치주의 모범적 사례로 참고가 되었다.³⁶⁾ 1983년 9월 鄧小平이 연변을 시찰한 뒤 개혁개방은 더욱 촉진되었다고 한다.³⁷⁾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연변 등지 조선족 사회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일부 조선족 연구자들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조선족이 부딪힌 변화상과 문제점, 그 대책을 다각도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조국관념’ 혼돈의 시정, 즉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며, 중화민족의 一員임을 자각하고 자존심과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면서 생긴 경쟁능력의 부족을 극복해야 한다, 拜金주의 영향으로 생긴 윤리도덕의 문제, 즉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야기된 사회의식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³⁸⁾

한편 최근 한국사회에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고 조선족에 대한 ‘차별’로 비판했던 중국당국의 연변 조선족에 대한 소위 ‘3觀 教育’은 조선족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행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³⁹⁾ 3觀教育이란 조선족, 특히 연변 조선족에게 특유의 역사관 민족관 조국관 등 3觀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에 延邊지역에서 실시했던 중국(연변) 당국의 특별교육이었다. 즉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에 살고있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역사이다, 조선족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중화민족) 가운데 살고있는 한 민족이다,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현재 중국(연변) 당국은 조선족이 “나는 한국(조선)인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¹⁾ 이는 그만큼 조선족 사회의 正體性 動搖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사이에서도 한국에 와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자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한다.⁴²⁾ 하지만 특유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민족교육의

34) 曹龍浩·朴文一 주필, 『21세기로邁進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 遼寧民族出版社, 1997, 342쪽.

35) 위의 책, 347쪽.

36) 위의 책, 350~352쪽.

37) 위의 책, 357~358쪽.

38) 趙龍浩·朴文一 주필, 『21세기로邁進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 1016 ~ 1032쪽.

39) 현재는 연변 조선족에 대한 3觀教育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3觀교육은 중앙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연변당국의 주도로 연변에서만 실시했다고 한다.

40) 『閩島, 領土紛爭 地域으로 宣布해야』, 『오마이뉴스(Ohmynews)』 2004년 7월 26일자 보도기사(<http://www.ohmynews.com>) 참조.

41) 金炳鎬·康基柱, 「中國의 少數民族 政策과 中國朝鮮族 社會의 政治意識 및 民族意識」, 122쪽.

42) 한국에 滯留하고있는 어떤 조선족 人士는 “남의 땅, 남의 나라다”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라고 斷言하고 있다(『文化日報』 2006년 4월 5일자 5쪽). 그러나 한국에 와서 처음 뜻한 바와 같이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하다.

유지발전 또한 소중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民族問題研究中心’은 중국의 대외개방이 조선족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선족지역 經濟總量의 빠른 增長의 촉진, 조선족 산업구조의 긍정적 변화, 조선족 대중의 생활수준 제고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⁴³⁾ 그리고 대외개방이 조선족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인구유동과 도시화 과정 촉진, 경쟁의식과 시장기능의 제고, 민족교육과 민족문화의 새로운 발전 등을 지적하였다.⁴⁴⁾ 또한 대외개방이 민족관계의 건강발전을 촉진했다는 입장에서 대외개방이 오히려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의식케 하여 ‘祖國意識’을 높였고 和睦한 民族關係를 促進했다고 평가했다.⁴⁵⁾

그러나 조선족이 대외개방 조건 하에서 부딪힌 새로운 상황과 문제도 나타났다고 한다. 즉 法制가 未備하여 대외 경제활동이 곤란하고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인구의 비정상적 유동이 충격을 가져왔다. 또 전통 윤리·도덕이 도전을 받았고, 이에 따라 精神文明 建設의 必要性이 커졌으며, 教育部門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宗教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거주지역의 對外開放과 경제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投資와 勞務輸出을 늘려야 하며,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⁴⁷⁾

4. 中國 朝鮮族(社會)의 最近動向과 流動趨勢

(1) 최근 (연변)조선족 사회의 동향

1982년 당시 延邊의 人口는 187만 2,000여 명이었는데, 조선족이 75만 5,000여 명으로 약 40.3%를 차지했다.⁴⁸⁾ 그러나 2000년대 초 이곳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약 37%로 떨어졌다. 건국 직후부터 1982년까지는 98% 이상이 遼寧省 · 吉林省 · 黑龍江省 등 동북 3성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약 92.3%의 비율로 줄어들었다. 또 전체 조선족 인구 가운데 연변지역 인구 비율도 줄었다. 신중국 성립시 전체 조선족중 연변지역 조선족의 인구비율은 47.3%에 달했다.

과거 조선족 동포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요녕성 동남부 지역의 서간도지역은 평안도 출신이, 길림성 동남부 지역의 북간도, 즉 현재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은 함경도 출신이, 길림성 중부 및 흑룡강성 서남부 지역은 경상도 및 남부지방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였다.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조선족의 離農현상과 출산을 저하 등 인구감소로 자치주의 存立危機가 擧論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특유의 사회신분과 경제적 직장이 통합된 주민등록 개념인 戶口制度가 1992년 중국의 전면개방 이후 동요하여 몇몇 대도시와 省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변방인 연변조선족자치주 등에서는 아직도 유효한데, 조선족들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곳

43) 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研究』 1997년 6기, 21~22쪽.

44) 위의 논문, 22~24쪽.

45) 위의 논문, 24~25쪽.

46) 위의 논문, 25~27쪽.

47) 위의 논문, 27~28쪽.

48)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執筆小組,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 연변인민출판사, 1984, 1~2쪽.

이지만, 戶口는 여전히 자신의 출신지에 등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이 초래되고 있지만, 조선족 인구의 90% 이상이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⁹⁾ 그러나 실제로 호구는 그대로 출신지에 유지한 채 외지로 이동한 조선족의 숫자는 현재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연해지역 20만, 한국 13~20만, 러시아 및 일본 3만~10만 가량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특히 한국의 경우 2001년 6월 30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국적 불법체류자는 108,874명인데, 이중 조선족은 61,628명으로 조선족과 漢族의 비율은 6:4 가량이다. 최근에는 漢族 不法滯留者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최근 조사된 실제 中國國籍 불법체류자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15萬~20萬名 정도로 推算된다.

중국의 조선족사회는 중국 사회의 변천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부침을 거듭 하면서도 자신의 사회공동체를 형성, 유지해왔으며 나름대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사회의 개혁과 개방의 심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경제교류와 문화협력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이 차츰 드러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²⁾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대표 3,000여 명 중 55개 소수민족 대표로 360명을 선출하여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⁵³⁾ 인구가 적은 33개 소수민족에게도 각 민족에게 1명의 대표수를 배정하여 전국의 모든 소수민족이 최소 1명의 대표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 대표수 배정에서 조선족은 9명(요녕성 1명, 길림성 6명, 흑룡강성 2명), 만주족은 20명(요녕성 10명) 등이 배정되었다⁵⁴⁾ 인구비례를 따져보면 조선족 대표수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北間島’ 지역에 1955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세우고 1市 5縣을 統割케 하였다. 또 1958년 敦化縣을 自治州에 編入하고 1965년 圖們市를 세웠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는 延吉·圖們·敦化·琿春·龍井·和龍 등 6개 市와 汪清·安圖 두개 縣을 관할하고 있다. 2002년 초 자치주의 총인구는 240만여 명에 달하는데, 漢族이 59%, 조선족이 약 38%, 기타 소수민족이 3%를 차지하고 있다.⁵⁵⁾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는 漢族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권한의 많은 부분이 萎縮되고 있다. 자치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어(漢語)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주요 간부직도 한족의 비율이 더 높다. 중국 내에서 다른 민족과의 雜居나 混居가 일반적 대세이다. 때문에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49) 李振翎, 「韓-中 外交關係와 在中同胞」, 91쪽.

50) 金炳鎬, 「中國朝鮮族 農村社會의 危機와 對策」,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권 1호, 全南大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소, 2001, 44쪽.

51) 『文化日報』 2006년 4월 5일자 5쪽.

52) 許明哲, 「중국조선족 정체성 유지에 대한 사고—민족집거지와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 전략』, 金強·主筆, 延邊人民出版社, 2002, 246~247쪽.

53) 2002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5차회의에서 통과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 및 대표선거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5차회의의 결정」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인구가 특별히 적은 민족인 경우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편, 『中華人民共和國 法律彙集』, 민족출판사, 2002, 328쪽).

54) 전국인민대표대회 常務委員會 法制事業委員會 編, 『中華人民共和國 法律彙集』, 2003, 341~344쪽.

55) 「民族自治州 社會經濟發展」, 『中國民族年鑑(2003)』, 341쪽.

하면서 고유의 언어와 민족교육의 측면에서 集居의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근래 조선족 사회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戶籍上 인구는 거의 정체하거나 늘고 있지만, 實際人口는 國外 流出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온 최대 20만 여명의 조선족 가운데는 20~30대의 여성들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⁵⁶⁾

(2) 朝鮮族의 韓國·大都市 進出 추세와 延邊 當局의 行政組織 改編說

① 조선족의 한국진출 추세

많은 조선족 靑壯年들의 韓國進出과 不法滯留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장결혼을 통한 한국진출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혼 등의 가정파탄과 子女教育 不實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 부모의 한편, 혹은 양 부모의 장기간 한국체류는 老父母 扶養問題, 자녀의 교육문제, 농촌 조선족 총각들의 결혼난, 남녀의 風紀紊亂 문제와 人口減少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東北3省에서 山海關 이남으로 진출한 조선족 인구는 2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⁵⁷⁾

조선족의 유동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靑山里戰鬪의 現場인 汪清縣 大坎子村은 원래 조선족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漢族 주민들만 사는 마을로 바뀌고 말았다. 또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구역인 汪清縣 전체 인구는 27만 여명인데 조선족은 7~8만 여명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10만 여명이 넘었으나, 도시로 많이 나가고 조선족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점차 조선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⁵⁸⁾

國外移動의 경우 조선족은 특유의 血緣과 地緣, 學緣과 人緣 등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조선족은 대부분이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對 북한·러시아·한국 등과 무역에 종사하였다. 1992년 한국과의 수교이후에는 친척방문의 형식으로 産業研修, 勞務(人力) 送出, 國際婚姻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한국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유지되었던 조선족 교육은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학생수의 감소, 자금난 등으로 인해 현재 조선족 학교의 민족교육은 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한국 영사관에서 밝힌 통계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간 조선족 여성이 1993년에는 1,463명, 94년에는 1,995명, 95년에는 7,683명, 96년에는 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⁵⁹⁾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 입·출국한 조선족 동포의 숫자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최근 6년의 추세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평균 5만 7천여명 내외가 입국하고 44,300여명 정도가 출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을 제외하면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는 사람이 평균 2만 300여명으로 집계된다. 때문에 최

56) 許明哲, 앞의 논문, 259쪽 및 『文化日報』 2006년 4월 5일자 5쪽.

57) 『綜合新聞』 1997년 1월 6일자 ; 許明哲, 위의 논문 262쪽에서 재인용.

58) 李昌基, 「抗日的 滿洲, 朝鮮族이 떠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5년 8월 12일자(<http://www.ohmynews.com>) 보도.

59) 『綜合新聞』 1997년 4월 7일자 ; 許明哲, 위의 논문, 263쪽에서 再引用.

근 6년동안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는 조선족 동포의 숫자가 무려 12만 1880명이나 된다. 물론 이 표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 즉 밀입국 등의 방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유나 방법으로 한국에 滯留중인 조선족의 숫자는 아래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最近 6년간 入·出國 朝鮮族數 推移

年度	入國(명)	出國(명)	入·出國差(명)	備考
2000	60,176	29,295	入 30,881	
2001	67,679	33,079	入 34,600	
2002	61,781	39,960	入 21,821	
2003	58,271	60,597	出 2,326	한국정부 출국 장려(강제) 조치
2004	60,475	46,330	入 14,145	
2005	33,578	56,337	入 22,759	중국측 출국 통제(출국시 보증금 납입 등)
합계	341,960명	265,598명	入超 121,880명	

출처 : 韓國 法務部 出入國管理事務所 ; 『文化日報』 2006년 4월 5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備考는 조선족 동포 증언을 토대로 작성(비고)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조선족 숫자는 不法滯留者를 포함해 15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중국내 조선족 수는 모두 216만 여명이라고 한다.⁶⁰⁾ 그렇다면 많을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10에 가까운 9.3%의 숫자가 한국에 나와 머물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조선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위기”라는 지적이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도인 延吉市の 조선족 중·소학생 2만 2348명중 한국 출국 등의 사유로 偏父母 가정이 된 비율이 전체의 54%에 달했다는 놀라운 통계가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吉林省 柳河縣의 경우 조선족 중·소학생 부모 가운데 한명이 한국에 들어온 가정이 무려 62%에 달했다는 충격적 소식도 있었다.⁶¹⁾ 이처럼 중국 조선족의 가정은 ‘한국바람’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법무부)는 이러한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취업 희망과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한 方案으로 ‘동포방문 취업비자(H-2)’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H-2비자는 중국·러시아 동포들의 국내방문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法務部가 立案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빠르면 올해 7월

60) 『文化日報』 2006년 4월 5일자 5쪽.

61) 위와 같음.

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5년간 유효하며 單純勞務職에 한해 2년 단위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⁶²⁾ 또 최근 소식에 의하면 1회에 3년을 滯留就業할 수 있는 5년 有效의 複數査證(Visa)을 發給하는 ‘訪問就業制’가 순조로울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이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바뀌는 것이다.⁶³⁾ 물론 이러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측 동향이 중국 동포사회에 전해지면서 연변 등 일부 지역에서 비자(Visa, 査證)代行 브로커들이 先金을 챙겨 도주하는 등 혼란상이 빚어지고, 일손을 놓고 한국행을 고대하는 들뜬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⁶⁴⁾

한편 조선족 동포의 한국출국과 (불법)체류 못지 않게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남성들과의 결혼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현황을 아래의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표 2> 최근 6년간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추이

연 도	여성(명)	남성(명)	합계(명)	여성초과 숫자
2000	7,703	804	8,507	6,899
2001	9,625	94	9,719	9,531
2002	14,040	165	14,205	13,875
2003	18,063	342	18,405	17,721
2004	23,510	1,581	25,091	21,929
2005	27,717	3,275	30,992	24,442(명)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문화일보』 2006년 4월 5일자를 참고하여 작성.

비고 : 性別 조선족수는 연도별 累積値로 한국국적 취득자는 통계에서 제외함.

매년마다의 통계가 아닌 累積 數字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대략 현재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최근 6년간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은 27,717명, 한국여성과 결혼한 조선족 남성은 3,275명, 합계 3만 992명이다. 조선족 여성이 조선족 남성보다 2만 4442명 더 많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남성과 조선족 여성의 相異한 인식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혼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쨌든 최근 6년간 公式的으로 2만 8천여명에 육박하는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사실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 매우 큰 후유증을 초래했다. 바로 조선족 남성들의 신부감 부족과 결혼난인 것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족 가정과 사회의 同化(漢族化)를 촉진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

62) 『在外同胞新聞』 2006년 3월 16일~31일자(제54호), 1쪽.

63) 2006년 4월 『中央日報』·『東亞日報』 기사 참조

64) 2006년 4월 28일 MBC-TV의 '뉴스(News) 데스크(Desk)' 보도

없다.

물론 위의 <표 2> 가운데 합법적 결혼을 가장한 '위장결혼'의 사례도 상당수 일 것으로 추정된다. 브로커(broker)가 개입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빠진 일부 한국 남성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챙기며 위장결혼하는 수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4000~5000여 명에 달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 조선족 여성은 결혼 뒤 3년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조선족 여성들의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거나 가정을 뛰쳐나오는 경우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들 조선족 여성들은 초기에는 한국의 農漁村 지역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한국의 농어촌 총각들 가운데 국제결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때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즉 한국인의 국제결혼 사례가 2002년에는 15,913건이었던지, 2005년에는 43,121건(전체의 13.6%)으로 집계되고 있다.⁶⁵⁾ 그런데 2005년 말 통계를 보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外國 配偶者의 國籍은 베트남·필리핀·泰國 등 東南亞 출신이 17.7%였고, 중국이 59.5%로 1위였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인은 25,677명으로 파악되었다.⁶⁶⁾ 한국의 行政自治部가 2006년 4월 밝힌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5년 末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1%인 53만 6,627명이었는데, 중국국적이 46.1%인 24만 7440명으로 집계되었다.⁶⁷⁾ 이 가운데 단기체류자를 제외한 90일 이상 거주하는 조선족은 16만 9,995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한국 체류 외국인의 31.7%, 전체 한국 국적 취득자의 55%, 국제결혼 이주자의 42.1%나 차지한다.⁶⁸⁾ 이 비율로 계산해보면 2005년 전후에 무려 18,154명의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중국출신 신부의 70.7%가 조선족 여성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일부 위장결혼 사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죽하면 근래에 한국에 와서 온갖 사연을 겪으며 한국사회의 모진 풍파를 곳곳이 헤쳐나가는 조선족(연변) 처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TV 드라마까지 나오겠는가?⁶⁹⁾

물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이러한 통계에 파악되지 않은 조선족 동포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東南亞 출신 여성들은 농촌으로 시집오는 경우가 많지만, 조선족 여성들은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 주변이나 首都圈 工業團地 地域에 分布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⁷⁰⁾ 그러나 조선족 여성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뒤 潛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한국의 농촌 총각들은 피부색이 달라도 동남아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간다고 한다.⁷¹⁾

65) 한국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3년 8.4%, 2004년 11.4%였다(『중앙일보』 2006년 4월 4일자).

66) 『中央日報』 2006년 4월 3일자 1·5쪽.

67) 『聯合뉴스』 2006년 보도자료.

68) 위와 같음.

69) 영화 “댄서(Dancer)의 순정”이 2005년 4월 上映되어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또 한국의 대표적 TV채널인 MBC-TV에서 2002년 週末劇 “그대를 알고부터”를 방영하여 인기를 끌었고, KBS-1TV도 연변처녀 “양국화”란 주인공을 내세운 “열아홉 純情”이란 드라마를 제작하여 2006년 5월 22일부터 매주 월~금요일까지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70) 『中央日報』 2006년 4월 3일자 1쪽.

71) 위와 같음.

② 연변당국의 행정조직 改編說 및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

조선족의 대도시 및 중국 동남해안 개발지대로의 이동,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출국과 이동 등으로 인한 집거지의 해체와 인구감소 경향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존속해온 조선족 집거지의 실질적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吉林省 당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33%까지 떨어진 것을 계기로 이 자치주를 해체하고, 조선족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있는 현재의 延吉龍井圖們 3개 도시를 통합한 ‘延龍圖市’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한국언론의 보도가 있었다.⁷²⁾

한편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金振吉 연변자치주 州長 등 延邊朝鮮族自治州 자체에서 2005년 11월 ‘연변자치주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個年規劃(11·5規劃)’에 따라 이들 3개 시의 조정방안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있다. 또 吉林省 省都 長春에서 발행되는 『新文化報』는 2005년 11월 23일 이들 3개시를 경제적으로 합병하는 方案에 대한 공통인식이 이루어져 상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⁷³⁾ 연변자치주와 길림성 당국은 자치주와 합병 3개도시가 공존하는 1개 기구, 2개 간판 체제로 하되, 연길시를 縣級市에서 격상시켜 용정과 도문을 관할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한편 이들 도시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延吉 59%, 龍井 67%, 圖們 58%로서 全自治州의 조선족 평균비율보다 높은 편이다.⁷⁴⁾

만일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통합되는 3개 도시는 유리하겠지만, 조선족 집거지로서의 다른 연변 지역은 조선족 근거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위축되어 조선족자치주 등 조선족 사회의 해체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는 1952년 ‘自治區’ 설립 당시에는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과 조선족 노동자들의 한국이동으로 1996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난 2000년 말 자치주 전체인구 218만 4,502명 가운데 38%가량인 84만 2,135명으로 줄어들었고, 2005년 말에는 33%로 대폭 줄어들었다.⁷⁵⁾

이러한 조선족 인구비율의 감소에 따라 비어가는 주택과 토지는 점차 漢族들의 소유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족자치주내 150여 가구의 漢族마을로 알려진 和龍市 龍城鎮 원하촌은 부근 關門興西龍西 등 조선족 농촌의 농지 200ha를 사들였다고 한다. 또 100가구 정도의 조선족 마을이었던 和龍市 崇善鎮 元峰村은 조선족과 한족이 사는 ‘聯合村’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조선족 주민은 20여 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⁷⁶⁾ 또 연길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인 『延邊日報』는 중국인(漢族)들로부터 이자 돈을 빌려쓰거나 중국인 농가에서 샅일(小作)을 하는 조선족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개탄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⁷⁷⁾

이처럼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절대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50만

72) 『朝鮮日報』, 2006년 3월 11일자 A3쪽.

73) 『聯合뉴스』, 2006년 1월 16일자(인터넷)

74) 위와 같음.

75) 『朝鮮日報』, 2006년 3월 11일자 A3쪽. 한편 『연합뉴스』(2006.1.16자 보도)에 따르면 연변자치주의 전체인구 220여 만명 가운데 조선족은 39.4%인 84만 5천 여명이라고 한다. 한편 같은 시기 『한국일보』는 2000년 말 조선족 인구비율이 38.5%였다고 보도하였다.

76) 『朝鮮日報』, 2006년 3월 11일자 A쪽.

77) 위와 같음.

1,397명, 2090년에는 19만 4,227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22세기 초반이 되면 중국에서 조선족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비관적 예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그러나 1992년 韓中 修交以後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가속화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중국 조선족을 대신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한국인 교민’ 집단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과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중국내 한국인 사회의 형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6년 초 중국 각 지역내 조선족 및 한국 교민 현황을 아래의 <표 3>으로 정리해 보았다. 延邊地域の 韓國僑民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金永默(現 49세) 연길시 黨書記의 증언에 따르면 延吉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352개중 70% 가량이 한국인 투자회사라고 한다. 이들 한국계 기업은 종래에는 식품·방직 등 경공업 분야에 치우쳤으나, 최근에는 의료산업과 IT분야 등 첨단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다.⁷⁹⁾ 또 이곳에는 조선족 민족대학인 延邊大學도 있다. 따라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延邊에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僑民의 경우 한국에서 가깝고 경제활동에 유리한 東南部の 沿近海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족 분포 역시 유사하다. 중국 관내지역의 주요 도시지역에 집거하고있는 조선족 및 한국교민의 다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⁸⁰⁾ 따라서 이들 두 집단의 상호이해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융화하기에는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표 3> 중국내 조선족 및 한국 僑民 개략적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구분	조선족 숫자	한국 교민	비 고
연변조선족자치주	81만		
北京·天津 등 수도권	17만	10만 4,000	
上海 등 華東지방	8만 5천	3만 3,300	
靑島 등 山東지방	18만	7만 3,200	
遼寧省 등 東北3省 지역	40만	2만 5,900	
深圳·廣州 등 華南지역	6만	1만 4,400	
西安·重慶 등 서부지역	2만	2,000	
해외근무·이주	20만		
합 계	192만 5천	25만 2,800명	단기체류자(25만명)를 합산하면 50만명 상회

출처 : 2006년 3월 중국언론 보도 및 駐中韓國大使館 자료 종합.

78) 「조선족 인구위기 어떻게 풀어나갈까?」, 『연변녀성』 2006년 3월호 ; 『朝鮮日報』 2006년 3월 11일자 A3쪽에서 재인용.

79) 『韓國經濟新聞』 2006년 4월 18일자 A37쪽.

80) KOITRA(韓國貿易振興公社) 및 中國韓國商議會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의 중국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조선족·한족·만주족 등의 중국인 직원들은 2001년 약 8,000명, 2002년 12,000명, 2003년 29,000명, 2004년 56,000명, 2005년 89,000여 명 등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파이낸셜뉴스(Financier News)』 2006년).

5. 延邊 朝鮮族 中·小學 教育實態와 ‘家庭의 危機’

조선족 동포들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연변 조선족 사회의 학교교육, 특히 소학교와 初中高中(한국의 중·고교) 학생들의 심각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연변지방에서 ‘殘缺家庭 子女’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 한편 혹은 쌍방 모두가 죽거나, 한편 혹은 양친 모두 해외로 출국한 가정의 자녀를 지칭한다. 延邊 조선족의 잔결가정 문제는 중국내 어떤 곳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2003년경 이곳 조선족 중·소학(초등학교) 학생 가운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47.1%에 불과했다.⁸¹⁾

아래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3년 전후 부모가 출국한 가정의 비율은 38.7%, 부모 이혼 가정은 7.9%, 부모 한편 또는 양친이 사망한 경우는 1.65%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외지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52.9%의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⁸²⁾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首府인 延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양친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비율은 45.3%에 지나지 않고 이혼가정의 비율은 무려 9.3%나 된다. 특히 부모가 출국한 비율은 40.6%나 된다. 이는 연변, 특히 연길의 조선족 학생들이 매우 부실한 가정환경에서 자란다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연변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 부모상황 통계표

부모 현재 상황	연변 8개 市·縣		연길시	
	학생수 (N=2,505)	백분비(%)	학생수 (N=999)	백분비(%)
부모와 함께 생활	1,179	47.1		45.3
부모 이혼	197	7.86	453	9.3
부모 한편 또는 모두 死亡	41	1.6	93	1.5
부친 출국	313	12.4	15	11.5
모친 출국	369	14.7	112	15.3
부모 모두 出國	287	11.45	153	14.1
母親 外地에	42	1.6	141	0.9
父親 外地에	61	2.4	9 20	2.0
기타	16	0.6	3	0.3

출처 : 연변대학 여성연구중심의 조사자료 ; 蔡美花, 「延邊朝鮮族中小學教育現狀調查研究」, 『東疆學刊』 2004년 4기, 102쪽.

81) 蔡美花, 「延邊朝鮮族中小學教育現狀調查研究」, 『東疆學刊』 2004년 4기, 102쪽.

82) 위와 같음.

더욱이 나이가 어려 민감한 영향을 받기 쉬운 연길시 조선족 소학생 가정중 부모가 출국한 비율은 43.4%, 부모이혼 비율은 9.3%, 부모 사망의 비율은 1.5%에 달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인으로 인해 조성된 ‘잔결가정’ 학생의 비율은 무려 54.7%에 달하고 있다.⁸³⁾ 전 연변에서 학생 부모의 출국율이 가장 높은 安圖縣의 경우는 무려 45.7%에 달했다. 또 전 연변 중소학생들의 가정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보면 39.2%의 도시학생과 28.7%의 농촌학생들이 ‘잔결가정’의 자녀들이다.

이를 학교별로 구분해보면 小學生 부모의 출국율은 40.2%, 初中生(한국의 중학생) 부모의 출국율은 39.2%, 高中生(한국의 고교생) 부모의 출국율은 32.4%에 달했다.⁸⁴⁾ 특히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절실한 소학생과 초중학생 부모의 출국비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다. 연길시 어떤 중학교 학급의 경우 60명 가운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은 단지 17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학생의 家長은 한국에 간지 십년이나 되어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위 ‘한국바람’이 조선족 사회를 철저히 해체시키고 있는 무서운 현실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朝鮮族 學生들의 漢族學校 취학비율 상승이다. 연변의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학생이 한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은 1998년 소학생이 3.6%, 중학생 6.16%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소학생이 13.7%, 중학생이 무려 12.7%로 늘어났고, 2003년에는 평균 15%에 달했다. 2003년에 조선족 소학생의 입학지수는 역사상 최저였다. 심지어 어떤 조선족 집안은 戶口까지 바꾸어가면서 자녀를 한족학교에 취학시키기도 했다. 연길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어떤 漢族學校는 2003년에 무려 8개반에 400여명의 학생을 모집했는데, 한 반에는 평균 8·9명의 조선족 학생들이 있었다고 한다.⁸⁵⁾ 연변 동포들은 자녀들의 漢語 실력이 뛰어들어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까봐 조선족 학교에서도 한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한다. 심지어 연길시 新興小學校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로 數學 英語 등 주요과목의 수업을 漢語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⁸⁶⁾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한 추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족문화와 정체성의 상실이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조선족 학생들의 인구감소이다. 龍井市 朝陽川鎮 太東소학교는 5년전에 40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2003년 10월에는 50여명으로 격감하였다. 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소학교는 1990년에 228개가 있었으나, 2000년에는 92개로 줄어들었다. 무려 64.4%가 감소한 것이다. 和龍市는 延邊에서 조선족 인구가 가장 密集된 地域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148개의 조선족 소학교가 있었지만, 2002년에는 거의 50%가 줄어들었다. 이처럼 조선족 민족교육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조선족 인구의 감소와 조선족의 沿海 도시지역으로의 진출, 漢族 학교로의 轉學 등을 꼽을 수 있다.⁸⁷⁾

각주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변지역 조선족학교 학생들은 감소하는 반면에 漢族學校 學生數는 점차 增加하고 있다.⁸⁸⁾ 연변자치주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선족 학

83) 위와 같음.

84) 위의 논문, 103쪽.

85) 위의 논문 105쪽.

86) 『韓國日報』, 2006년 보도자료.

87) 앞의 논문 105쪽.

생이 한족학교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소수민족 정책을 관철하고 조선족 교사의 소질을 계발하며, 조선족학교의 효율적 경영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단행코자 하였다.⁸⁹⁾ 그러나 단시일 안에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상가상으로 조선족교육은 더욱 약화되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으며, 교육의 질과 양 모두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조선족 학생들의 학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데, 특히 漢族 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자질이 우수한 조선족 학생들이 대거 한족학교로 전학하고 ‘잔결가정’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며 조선족 교사진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조선족교육의 질과 양은 모두 저하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朝鮮族學校의 성적은 漢族學校 보다 우수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족학교보다 차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시험과 고등학교 입학시험 수학·물리·화학의 성적을 비교해본 결과 한족학교 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이다.⁹⁰⁾

또한 주목되는 현상은 현재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의 70%가 獨生子女라는 사실이다. 집에서 ‘소황제’로 받아들여지는 독생자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양보심이 없으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⁹¹⁾

小學에서 初中, 高中으로 올라가면서 우수학생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실적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해온 조선족 특유의 교육우세를 상실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연변 중소학 교육은 이처럼 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민족교육 이념을 수립하고, 교육예산 투입을 늘리며 조선족학교 교사들의 대우를 높이고 그들의 자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조선족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민족교육이 민족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중대사임을 알고 이에 관심을 갖고 重視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⁹²⁾

88) <표 5> 연길시 소학생 취학상황 통계표

연 도	조선족 소학 학생수	漢族 소학 학생수
1998	2,493(명)	1,651(명)
1999	1,827	1,826
2000	1,556	1,718
2001	1,477	1,745
2002	1,369	1,893
2003	1,271	1,900

출처 : 『延邊日報』 2003년 9월 1일자 ; 蔡美花 「延邊朝鮮族中小學教育現狀調查研究」, 『東疆學刊』 2004년 4기, 104쪽에서 재인용.

89) 위와 같음.

90) 위의 논문, 107쪽.

91) 위의 논문, 108쪽.

92) 위와 같음.

6. 조선족 사회의 발전전략과 향후 전망

(1) 조선족 발전전략

중국의 조선족학자 曹龍浩·朴文一 등은 중국 조선족의 ‘발전방략’을 실현하기 위한 주관적 조건으로 민족응집력의 제고, 민족집거지의 건설, 민족성격의 개조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⁹³⁾

특히 民族集居地 建設方案으로 延邊地域을 朝鮮族의 大集居地로, 黑龍江省과 遼寧省의 一部 都市와 鄉村에 小集居地를 建設하는 방법을 실천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한 관건은 조선족의 산업화와 조선족집거지 건설을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對中國투자 한국기업체와 집거지 건설을 잘 결합하는 방안, 또 민족기업가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또 민족성격의 改造 및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선족의 장점으로 進취성·성급성·모험성·群體性을 든 반면, 단점으로 자주성·창의성·인내성 부족을 들었다. 따라서 ‘시장경제’ 속에서 進취성·성급성·모험성을 개조하고 또 자주성과 인내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⁴⁾

한편 중국의 한 조선족문제 전문가는 조선족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는 조선족 인구증가율의 하강 추세와 민족교육 규모의 축소 및 教育質의 低下, 조선족 간부 대오의 축소, 미래지향성 소비경향의 결핍 등을 엄중한 현실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민족 존속의 길’로 조선족 지역 경제토대의 강화, 민족교육 강화와 민족문화 보존 발전, 그리고 민족간부 양성,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⁵⁾

또한 그는 조선족의 ‘발전 전망’으로 현실을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으로 인정하고, 조선족사회의 인구유동과 중대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며, 동북아시아(두만강 하구 등) 개발은 또 하나의 귀중한 기회이니 이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⁹⁶⁾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2) 조선족의 ‘人口素質’ 평가와 전망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資質을 인구학·민족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논문이 있다.⁹⁷⁾ 흥미있는 사실은 이 논문에 따르면 조선족이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조선족 공동체와 가정 해체의 위기, 조선족 청소년 교육 양과 질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수한 평가결과가 앞으로도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人口素質’의 評價要素는 嬰兒사망율, 1세 아동의 예상수명, 성인의 識字率 등 3개항 지표로 성립한다.⁹⁸⁾ 특히 조선족은 문화교육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중학교 졸업 수준의 위상을 보여 다른 소수민족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⁹⁹⁾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결과는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93) 曹龍浩·朴文一 主筆,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 1033~1058쪽.

94) 『方略』의 실현과 민족성격의 개조와 구축, 『21세기로 매진하는 중국 조선족 발전방략 연구』, 1046~1058쪽.

95) 鄭信哲, 「겨레의 앞날을 그리며」,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료녕민족출판사, 1999, 113~140쪽.

96) 위의 책, 112~148쪽.

97) 張毅, 「中國18個百萬人以上少數民族人口素質分析」, 『民族研究』 1995년 5期.

98) 위의 논문, 19쪽.

빛을 잃게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중국 조선족 부녀의 생육율은 1981년 1.91명에서 1989년에 1.56명으로 무려 0.35명이나 하강하여 중국내 전 소수민족은 물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漢族 婦女的 生育率 2.2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⁰⁰⁾ 이는 조선족의 人口減少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豫測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이러한 취지의 조선족 인구 관련 저작이 이미 1990년대 초에 나오기 시작했다.¹⁰¹⁾

최근 한국 여성들의 출산을 저하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 조선족 부녀들의 생육을 저하는 이미 1989년에 중국내 다수민족인 漢族은 물론 소수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생육율(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이는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족 사회의 해체경향과 함께 조선족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중국에서 조선족의 지위나 영향력을 급속히 저하시킬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3) 조선족 集居地와 그 전망

조선족 集居區에서 조선족 인구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조선족 인구가 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변의 4개 도시가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UN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두만강 하류 유역의 多國개발이 이미 가동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변지역은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상당한 경제발전과 생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다수가 漢族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연변지역에서조차 조선족은 소수민족이 되고 집거지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한다고 한다.¹⁰²⁾

1949년 중국공산당 정권 성립 직후부터 2004년까지 주요 시기별로 연변지역의 조선족과 漢族 인구증감 동향을 다음의 <표 6>으로 정리해 보았다.

조선족은 2000년에 가장 많은 84만 2천여 명에 달했으나,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漢族은 1949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49년부터 197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조선족과의 인구비율이 역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延邊이 조선족자치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미 한족이 다수민족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조선족 인구는 이 시기에 겨우 158,179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족 인구는 무려 541,230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중국 당국의 정책이 직접·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말부터 1953년 7월까지 전개된 중국의 ‘抗美援朝戰爭’과 1960년대 후반에 몰아닥친 ‘文化大革命’의 餘波로 조선족 동포들이 북한으로 이동하거나 큰 시련을 겪은 것이 조선족 인구증가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 시기 漢族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다분히 중국공산당과 정부 당국의 의도

99) 위의 논문, 24쪽.

100) 羅濤, 「論中國少數民族人口的生育政策」, 『民族研究』 1997년 2기, 54쪽.

101) 金炳鎬, 『中國朝鮮族人口簡論』,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金炳鎬, 「中國朝鮮族人口發展和分布變化的趨勢」, 『民族研究』 1992년 2기; 原華榮·張志良·吳玉平, 「中國少數民族人口文化分布的地域性研究」, 『民族研究』 1994년 2기.

102) 曹龍浩·朴文一 主筆, 『21世紀로 邁進하는 中國 朝鮮族 發展方略 研究』, 1041~1042쪽.

적 정책과 한족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移住 增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조선족 인구의 상당수가 戶口만 이곳에 두는 경향이 있어 실제 조선족 인구는 위의 공식 통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인구 감소·漢族 인구 증가 추이

연 도	조선족 숫자	조선족 비율	漢族 숫자	漢族 비율
1949	529,258(名)	63.36(%)	288,757(명)	34.57(%)
1970	687,437	44.46	829,987	53.68
1980	733,028	40.41	1,048,254	57.79
1990	838,998	40.54	1,172,363	56.65
1995	859,956	39.52	1,252,471	57.56
2000	842,135	38.55	1,278,824	58.54
2001	840,096	38.40	1,284,349	58.70
2002	833,866	38.12	1,290,387	58.98
2003	829,053	37.93	1,291,870	59.11
2004	820,481	37.68	1,290,868	59.29

출처 : 연변조선족자치주 2005년 통계연감

현재 조선족사회의 도시지향적 일방적 인구이동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조선족사회가 해체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明若觀火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족사회가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인구이동이 20~30년 지속된다면 중국 조선족사회는 필연적으로 해체의 위기에 빠질 것으로 豫測된다. 현재 조선족 사회는 미래운명을 개척할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즉 조선족사회의 해체나, 아니면 중국 內陸지역 및 한반도 사이의 交流와 東北亞 多國合作體系 가운데서 ‘特殊 邊境文化區域’을 건립하여 면목을 일신하고 民族文化를 繼承하는 새역사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岐路에 서있는 것이다.¹⁰³⁾

현재 중국정부는 농민의 토지소유권 인정문제와 현대판 신분제도로 불리는 거주이전 제한을 폐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50년대 이래 대표적인 인민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戶口制度(호적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 정부는 漸增하는 都農間 貧富隔差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해 11개 省直轄市에서 농민의 도시 이주를 막는 현행 호구제도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103) 金強一, 「朝鮮族社會人口流動和集居地空洞化問題的對策研究」, 『東疆學刊』 2004년 3기, 84~85쪽.

최근 都農間 거주이전 제한 철폐지역으로 河北省과 遼寧省 등 11개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¹⁰⁴⁾ 특히 이 가운데 조선족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遼寧省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농촌거주 조선족 동포들의 도시 이주와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위의 <표 3>과 <표 6>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초래된 중국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流動추세는 더욱 加速化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조선족 마을이 空洞化하고, 특히 조선족 처녀들이 매년 1,000명 이상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연변지역은 분명 위기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보기를 들면 北京의 望京, 山東省의 靑島, 遼寧省의 瀋陽 등은 조선족 동포의 새로운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족과 한국인 장기 체류자, 한국기업의 결합을 낳았고, 21세기형 동포사회의 새로운 모델(Model)로 평가되기도 한다. 근래 黑龍江省의 성화촌, 遼寧省의 만용촌 등 조선족 동포들의 새롭고도 模範的인 密集村과 주거지가 형성되는 발전적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¹⁰⁵⁾

때문에 북경의 望京에 살고 있는 한 조선족은 “동포사회가 多層化하고 도시화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일개 민족을 의미하는 ‘朝鮮族’이란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韓民族’이란 포괄적 개념으로 동포 사회의 발전전략을 구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⁰⁶⁾ 이제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집중된 곳으로 이동한 조선족 동포들이 새 거주지에서 어떻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함께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중국의 주류사회로 進入하는 조선족 동포가 늘고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예를 들면 북경의 골프장 36곳 중 4곳이 조선족의 소유이며, ‘漢擎山’ 등의 조선족 운영 기업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¹⁰⁷⁾ 이처럼 적지 않은 조선족 동포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좋은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5. 맺음말 — 중국 조선족사회의 전망 : 우려와 기대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新疆이나 티벳 등 서북지방의 일부지방을 제외하면 (소수)민족구역 자치와 평등·단결원칙에 따라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점진적이면서도 간접적인 同化정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의 ‘소수자’로서의 한계에 더하여 중국의 ‘개혁·개방’과 급속한 경제발전, 그리고 광범한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등 자본주의화 추세가 광범한 농촌 및 변경지역에 산재하는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북(만주) ‘조선족’ 사회의 경우 1990년대 北韓의 위기심화와 脫北者 문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의 ‘한국바람’으로 인한 한국으로의 출국과 불법체류, 산업화와 개방에 따른 도시 및

104) 『文化日報』 2005년 11월 9일자 37쪽.

105) 『韓國日報』 2006년 보도자료.

106) 위와 같음.

107) 위와 같음.

중국 關內 지방으로의 이동 등으로 심각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延邊朝鮮族自治州 등을 비롯한 조선족 사회는 현재 조선족 인구감소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 가정과 민족교육의 위기, 농촌사회 등 集居地의 분산과 해체, 漢族에의 同化라는 전반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中國公民으로 살아가야 하는 朝鮮族이 감수해야 하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중국 조선족사회는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데, 중국공산당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각종 개발계획이나 프로젝트(工程) 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 黨政 당국의 방침에 따른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정착에 따른 생존경쟁의 강화, 조선족 지방자치 단체나 학교, 단체 등에 대한 각종 보조나 지원금의 축소 등 資本의 논리에 따른 지원축소 등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漢化추세, 급격한 도시로의 집중현상, 또한 국제화의 추세 자체가 조선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조선족이 이러한 사회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들이 처한 주객관적 여건을 냉정히 파악하고 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일부에서는 현재 조선족 사회가 농촌 集居사회에서 도시 散居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불가피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평가기도 한다. 실제로 다수의 조선족이 중국 동북지방 이외의 대도시 지역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조선족 사회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확고한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교육의 시행, 그리고 새로운 집거지 형성이 어려울 경우 조선족 共同體의 해체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으로서의 특수성과 중국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002년부터 본격화한 ‘동북진흥전략’과 잘 연계할 필요도 있다. 또 새로 중국에서 형성되는 ‘한국인 사회’의 동향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족 사회와 한국인 및 한국기업의 결합을 높여 경제기반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北京·天津, 上海, 青島, 深圳·廣州 지역 등 關內의 조선족 한국인 밀집지역을 延邊과 동북3성 등의 조선족 밀집지역과 유기적이며 선순환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조선족 사회 및 가정의 해체와 流動, 同化경향은 우리가 짐작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물론 중국의 개방과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조선족 사회가 邊境의 농촌사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불안정 현상은 새로운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부작용 역시 작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과장된 인식과 과도한 기대심리, 또 일부 조선족 사회에 있는 ‘한뫼풍조’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합리적 대책을 세우기만 이러한 不安定狀況을 오히려 발전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在外同胞法의 적용범위에서 중국·러시아 동포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는 조선족 등과 관련된 해외동포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한국방문과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방문 複數비자(visa)를 빠르면 올해 7월부터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장도 일정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선족 동포들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韓中 양국은 여러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同伴者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있지만, 한국과 조선족(사회)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교류확대 추세와 남북통일 과정 등 韓民族의 발전과 화합과정에서 조선족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 조선족은 7,000만 韓(朝鮮)民族의 희망찬 앞날을 위한 훌륭한 人的 資産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추후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며 中國, 나아가 世界속의 位相을 굳건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Korean Nationality in China

Chang Seiyoon (Koguryo Research Foundation)

Except for a few regions in the Northwest in Xinjiang and Tibet, China's ethnic minority policy has been implemented relatively well based on the principles of minority self-rule and equality and unity. However, in a long-term perspective, the policy is that of gradual and indirect assimilation. On top of the limits of the "minority," minority ethnic groups living mostly in agricultural and border regions are threatened by capitalist trends such as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rapid economic growth, wide-rang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adop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particular, the Korean nationality in China's Northeast (Manchuria) faces a serious crisis of dissolution due to the North Korean crisis and refugees since the 1990s, illegal immigr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movement to urban and central Chinese region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the open policy. Moreover,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faces a predicament of Korean population decrease, lowering of education quality, family crisis, dissolution of the agricultural social structure, and assimilation to Han Chinese culture. The time requires a many-sided strategy to solve the problems.

The ethnic Korean society in China is affected by the adop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and the decrease in the state support as much as the policies and influenc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The trends of a high degree of assimilation into Han Chinese, rapid urbanization and globalization have more effect on Korean society in China. The solution to this crisis depends on Korean nationality's correct analysis of the crisis and finding an effective measures and strengthening community's capability.

A few scholars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pains of the shift from the agricultural to urban social setting. However, without strong ethnic identity and education and formation of new centers of community, dissolution of Korean society and assimilation into the mainstream Chinese society will only accelerate.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require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 multifaceted development plan based on particularity of the Korean ethnicity and generality of the Chinese society.

Key Words : Korean Nationality in China, China's ethnic minority, dissolution of ethnic Korean society in China, assimilation to Han Chinese culture, development plan